



정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7. 6.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
과 장 : 주 원 철
서기관 : 김 민 옥
전 화 : 500-1874
쪽 수 : 4P
별첨자료 : 있음(9P)

이 자료는 2011년 7월 7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R 콩고 뚬엔게 농촌종합개발 지원

- 낙후된 뚬엔게 마을을 고소득 농촌 마을로 조성 중

〈 주 요 내 용 〉

- ◇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농업협력사업으로 DR콩고의 뚬엔게 농촌 종합개발을 지원 중('10.10~'13.12, 4개년, 169만불)
- 농업분야 최초의 기관간(농식품부-KOICA) 공동 공적개발원조 사업
- ◇ 세계 식량안보와 우리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에 상호 도움이 되도록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추진키로

□ 아프리카 DR 콩고의 수도 킨샤사 서쪽으로 20km 떨어진 빈곤 마을인 뚬엔게에 살고 있는 빅터(11세)는 하루 몇 번씩 무거운 물통을 들고 왕복 3km를 걸어 콩고강에서 가족이 먹을 물을 길어오고 있다. 그의 아버지 문다디(34세)씨는 수작업에 의지해 벼농사를 짓고 있으나 기술도 부족하고 종자도 좋지 않아 아내 까사이와 아들 빅터를 비롯한 7명의 가족의 자급자족도 어려운 상황이다.

○ 그러나, 문다디 가족을 비롯한 25,000여 주민들은 한국의 농림 수산식품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뚬엔게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 문다디씨는 지난 5월에 발족한 마을개발위원회에도 참여하여 농식품부가 지난 3월 굴착을 완료한 관정의 유지관리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 관정에 전기가 인입되면 아들 빅터가 가족을 위해 매일 몇 번씩 왕복 3km를 걸어야 하는 수고를 줄이고 KOICA에서 지어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뚬엔게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작년 3월 DR콩고 카빌라(Joseph Kabila)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열악한 농촌지역에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 전수를 요청한 이후, 농식품부와 KOICA가 기관간 전문성을 살려 작년 10월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 최초의 부처간 공동협력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이다.

□ 농식품부는 뚬엔게 마을이 자급자족 단계를 넘어 수도 킨샤사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고소득 농촌마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169만 불을 들여 벼·채소 재배기술 전수, 정미소 설치, 양어장 건설 등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식수개발, 마을회관 건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현재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지하수 관정 1개소를 굴착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추가로 1개소를 더 뚫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영농교육, 제빵, 이미용, 제봉기술 등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마을회관도 건설하고 있다.

○ 또한, 영농기술 전수와 우량종자 개발을 위한 벼·채소 시범포와 부족한 유기질 비료를 보충하기 위한 퇴비장 설치도 준비 중이고,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양어장 건설, 소규모 정미소 설치, 농기계 및 농기구 제공 등의 사업도 계획되어 있다.

○ 이 프로젝트의 사업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김병철 단장은 “췌엔게 마을은 수도 킨샤사와 가깝고 콩고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고소득 마을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킨샤사 시민이 이곳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농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 주원철 과장은 “아프리카에 대한 에너지·자원 개발 투자와 협력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식량 부족이 극심했던 가난한 나라에서 불과 30여 년 만에 주곡 자급을 달성한 국가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등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 기꺼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 KOPIA(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 개도국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지속 상주시켜, 맞춤형 기술지원과 농업 유전자원 공동 개발을 하는 농촌진흥청의 지속형 기술협력 사업

○ 농식품부는 현재 국제농업협력사업으로 『췌엔게 농촌종합개발사업』 외에도 『모잠비크 영농기술교육 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 빌게이츠 재단과 협력하여 에티오피아의 『소규모 관개시설(HIT) 확충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 HIT(Household Irrigation Technology) :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보급 중인 가계 단위 관개 기술로, 지하수를 활용하는 수동 및 페달 펌프 방식 또는 모터펌프 방식이 있음

□ 특히, 주원철 과장은 “세계 식량 가격 상승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농업과 식품 분야의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우리 농식품 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농업개발과 연결시킬 경우 궁극적으로 개도국 지원과 신시장 개척, 글로벌 식량안보에 모두 기여할 수 있다”며 “농식품부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공적개발원조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추안개 농촌종합개발사업 진행 상황

I. 사업개요

- ☐ 사업명 : DR공고 추안개 농촌종합개발 사업
- ☐ 사업목적 : 농업·농촌개발경험 전수를 통한 빈곤퇴치 및 농촌생활환경개선
- ☐ 대상지 : DR공고 추안개 지역
- ☐ 사업규모 : '10.10~'13.12(4개년)/1,937백만원(168.4만 \$)
- ☐ 사업내용 : 주민소득 향상 및 영농기술 교육활동사업
 - 지역사회 인프라건설
 - 마을회관(1개소), 벼 건조장(1개소), 농기계창고(1개소), 식수개발(3공)
 - 주민소득 향상
 - 양어장(1h) 양계 및 부화장, 가정용 쌀 도정기 운영
 - 기타 : 주민 영농기술 교육,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
- ☐ 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KOICA 사업

- 사업비 : 8,625백만원(750만 \$)
- 지역사회 인프라건설
 - 마을진입로(800m), 학교(1개소), 보건소(1개소), 공동화장실(2개소), 유지관리사무소(1개소)
- 농업생산기반 정비
 - 용수로, 배수로 등 관개개발(750ha)
- 기타 :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

II. 진행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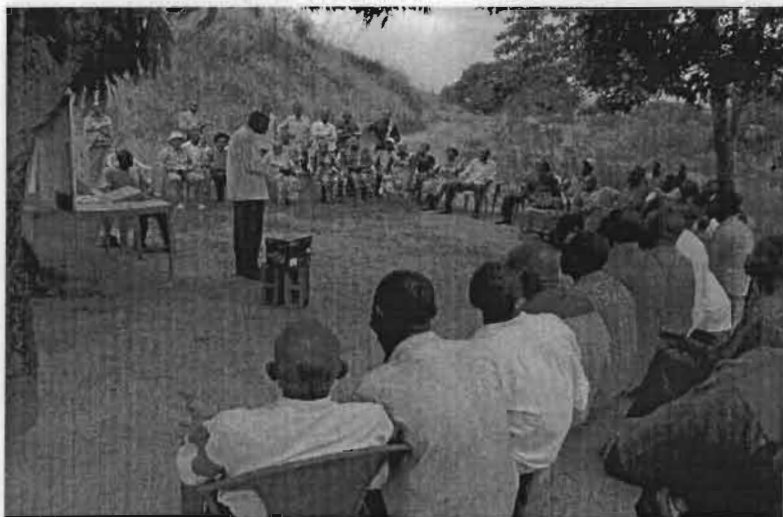
☐ 농어촌공사

- 지역사회 인프라건설
 - 마을회관, 벼 건조장, 농기계창고 : 부지선정 및 측량 실시
 - 식수개발 : 1공 착공완료('10년), 2공 관정굴착작업 시행중('11년)
 - 시범포 : 채소, 퇴비장부지 임대차 협의 중
- 주민소득 향상
 - 양어장(1h) 양계 및 부화장, 가정용 쌀 도정기 운영 : 하반기 계획 중
- 기타
 - 주민 영농기술 교육 : 마을개발 위원회 위원장 선정
 - 연수생 초청 : 2회 실시('10년, '11년)
 - 전문가 파견 등

☐ KOICA

- 지역사회 인프라건설
 - 학교건설 : 세부설계 중
 - 마을진입도로 건설 : 주민이전관계에 대해 관계당국과 협의 중
- 농업생산기반 정비
 - 관개시설개발 : 세부설계 중
- 기타 :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 진행 중

[참고 2] 사진 참고 자료



<츄엔게마을개발위원회 위원장 선거 장면>



<츄엔게 들판 전경>



<식수개발을 위한 관정 굴착 장면>



<츄엔게마을 어린이들>



<마을 정비 기념 사진>

[참고 3] 콩고민주공화국 농업개황

【농업의 중요성과 잠재력】

□ 농업은 콩고민주공화국 경제의 근간

- '07년 농업고용인구는 전체인구 약 38백만명 중의 약 60% 차지, GDP 43억불의 43.5% 점유

★ '09년 기준 1인당 GDP 298\$

□ 농업부문의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큼

- 전체 농업용지 135백만ha 중 80백만ha 개발가능(세계은행 추산), 이 중 4백만ha는 1-2년내 관개수로 정비 가능

★ 국토면적은 한반도 23배(약 235만km²), 인구는 65백만명

- 종자 및 농업생산기술, 농기계 등의 지원으로 규모화(현재 0.2ha/1인)와 전문화를 추진하면 단기간에 생산성 증대 가능

◆ 콩고민주공화국 인구의 약 2/3가 종사하는 농업분야는 GDP 기여율이 1/4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 재래식 도구와 농업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지원을 통하여 생산성이 증대되면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

【농업 현황 및 문제점】

- 농업용수 부족으로 국토의 극히 일부(3%)만 농지로 활용
 - 기후는 건기(4월중순~9월중순)와 우기(9월말~4월초)로 구분되며, 건기에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업활동 중단
- 수출작물 위주의 농업생산 구조
 - 주요 수출작물 : 커피, 코코아, 고무 등
 - 주요 작물 : 카사바(manioc), 옥수수, 쌀, 사탕수수 등
 - 대부분 소규모로 경작
-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농업 생산성이 낮음
 - 관개시설 부족으로 기후에 따라 풍흉이 결정
 - 풍부한 노동력으로 경작지 대부분은 손으로 이용하는 도구를 사용, 농기계 사용은 거의 없음
- 유통·가공시설 및 연관 산업 여건이 열악
 - 유통·가공 시설 부족, 대량생산이 어렵고 농산물의 품질이 낮음
 - 종자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 및 기후 특성에 맞는 작물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농업금융 시스템이 열악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가 전무
 - 수확후 판매 및 운송 시스템이 낙후되어 소규모 지역시장 및 노점판매가 주를 이룸

[참고 4] 게이트재단과의 공동협력사업 개요

- 사업명
 - 에티오피아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
- 사업목적
 - 가계 관개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 가계 관개 기술에 관한 에티오피아 전문가 기술 향상
 - 가계 관개 기술의 개발 및 유지를 위한 공동 지식 공유
 - 에티오피아 공무원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
- 사업 내용(안)
 - 분야 : 지하수 개발 소규모 관정 사업
 - 기간 및 예산 : 2011 ~ 2014, (총 200만불)
 - 주요내용 : 게이트재단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와 연계하여 에티오피아의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 수자원 지도화 작업 및 소형 관정 시범개발 등 추진
 - 역할배분 :

<대한민국 농식품부>	<게이트재단 및 에티오피아 농업부>	<공동>
수자원 지도화 작업 전문가 파견(자문, 교육) 대상지역 소형관정 건설 기자재 지원	사업 총괄 계획수립 사전조사,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지하수 개발 기술자문 사업 대상지역 선정	공동워크숍 개최 사업진도 및 성과 평가

[참고 5] 모잠비크 영농기술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기술 보급체계를 확립하여 주민빈곤 퇴치 등 모잠비크의 농업 및 경제발전 기여
- 시행기관
 - 대한민국 : 한국농어촌공사
 - 모잠비크 : 모잠비크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 재 원 : 대한민국 정부 무상원조자금
- 총사업비 : 1,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2012(3개년)

□ 사업내용

- 영농기술훈련센터 설계 및 건축
 - 마푸토 도내 마라케니 군(Marracuene District, Maputo Province)
 - 강의실, 사무소, 회의실 등 연면적 714m² 철근콘크리트 구조(2층)
- 전문가 파견
 - PM/옥수수재배 : 사업관리 및 영농교육(1인/6개월)
 - 벼재배 : 시범포 조성, 재배교육(1인/6개월)
 - 농기계 : 농기계관련 교육(1인/5.5개월)
- 초청연수
 - 영농교육훈련센터 운영관계자(3명/28일, 1회)
 - 모잠비크 영농기술교육훈련센터의 독립적, 지속적 운영을 위한 관계자 역량 강화
- 기자재 공여
 -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잉크젯 프린터, TV 등 사무용 기기
 - 트랙터 등 농기계 장비 1식